

## 번데기를 깨고 나온 나비

동료의 부정을 못 본 척한 나는 공범자였다.

2000년대 초반, 지금은 도처에 있는 멀티플렉스영화관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 때였다. 당시 대학생들에게 영화관 스텝은 최신 영화도 많이 볼 수 있고 이성친구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였다.

대학생이었던 나도 용돈벌이 겸 영화관 스텝으로 6개월 정도 일했다. 그곳은 또 다른 작은 사회였다. 학교처럼 규칙과 별점이 있었고, 직장처럼 복지제도가 있었다. 스텝 복지 중 하나로 한 달에 정해진 횟수만큼 무료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지각을 하는 등 별점이 쌓이면 그달은 영화를 볼 수 없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플로어(입·퇴장 상영관 관리) 담당이었던 나는 영화관에 입장하는 동료의 티켓을 검수하다가 깜짝 놀랐다. ‘장애인 할인’이란 글자가 눈에 띄는 것이다. 그는 씨익 웃으며 들어갔고, 동료 매표 스텝이 끊어준 티켓일 텐데 내가 붙잡기도 웬지 뭐해서 모른척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만 안 하면 된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는 사이 부정 영화 관람을 하는 스텝들이 들불처럼 번졌다. 꼬리가 길 뿐만 아니라, 꼬리가 많아지기 까지 했으니 잡히는 건 시간문제였다. 결국 슈퍼바이저가 눈치를 채고 말았다.

그 사건으로 꽤 많은 스텝들이 부정행위로 퇴사를 당했다. 몇 달 간 함께하며 정들었던 동료들을 한 순간에 잃었다. 내부고발은 커녕 소신 있게 조언 한 마디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십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마음 한 구석에 죄책감이 남았다.

한 사람의 부정은 반드시 나비효과를 일으켜 부패문화를 형성한다. 작은 돈, 작은 청탁이라고 나 하나 썬이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된다면 청렴과는 거리가 먼 사회가 된다.

다행스럽게도 ‘청렴 수기’에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과연 위계질서가 가장 뚜렷하다는 군대에서, 그것도 몇 십 년 전의 경직된 군대문화 분위기 속에서 상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신기하게도 나비효과는 반대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부패문화를 청렴하게 바꾸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여러 수기들을 읽으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이후 아이스크림 하나 받지 않았던 어느 공무원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한번 받은 것도, 여러 번 받은 것도 모두 받은 것이다’  
청렴의 길로 가려면 꼭 기억해야할 교훈이다.

또한 부패는 언젠간 들통이 난다는 점이다. 어획량이 남들보다 적어도 곳곳이 합법적인 경로로만 고기를 잡은 어부가 벌금을 면하게 된 사연, 학생회장선거에서 청렴한 선거절차를 치르지 않은 학생의 낙선결과가 그렇다.

하지만 들통이 날까봐 청렴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 스스로의 존엄을 세우는 일은 남들의 시선과는 무관하다. 아무도 모르지만 오로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불교신도증을 만든 국립공원 관리자의 양심은 청렴이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나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일임을 잘 보여준다.

골목길을 매일같이 청소하시던 노모는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며 돈을 잃어버린 이름 모를 주인을 애써 찾아줬다. 어쩌면 부패는 이기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청렴하게 사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나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그로인해 자유로워진다는 점이다. 사사로운 요청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던 양심방역 수기의 주인공. 친한 친구의 내부분서를 빼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주인공, 회원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한 중국어 강사까지, 모두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15년 전, 동료의 부정을 못 본 척 했던 나는 공범자였다.

이기주의라는 번데기에 싸여 부패를 눈감았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반성한다.  
작은 나비의 날개 짓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청렴문화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함을 기억해야한다.  
이제 나도, 당신도 번데기를 깨고 나올 때다.

끝.